

법회안내

선해정사(0636)52-3508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음) 오전10시(3월22) 신도회거사법회 셋째주 일요일 오후2시 (격월간)
주지 성원스님

실상선원(02)499-4442

화엄선공기도 매월 1~3일 (음) 오전10시 30분
주지 정현스님
15~17일(음) 오전10시30분
감사기도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오후8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토요철야수행법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2시~익일 4시

직지사 수성구교인회(063)754-8629

정기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10시30분
직지불교대학 (초급반)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산중기도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동원정사(0346)593-758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30분
자비행·거사회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성총사(02)336-2052

일련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8시30분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장년법회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7시

법림사(062)234-2207

산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미지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오는 20일은 제17회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1백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겠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지속적으로 '쇼다운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들의 지활의지를 돕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대표소민원창구 등에서 차례를 양보하는 일에서부터 공공장소에 장애인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일까지 불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왜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 경전의 말씀을 들어 본다. (편지자 주)

○... 온갖 중생의 생명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이렇게 들었다

○...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사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엾이 여기고 갓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지쇄호경)
○...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중생을 애호(愛護)하되 제 몸과 같이 해야 한다. (보살행변화경)
○... 설사 나에게 공양하거나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나에게 배운 복덕은 병든 사람을 돌본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중일아미경)
○... 세존이시여, 저는 그 고통받는 사

람들이 고통을 벗어나도록 저의 재산을 다 쓰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나면 물러날 것입니다. (승안경)
○... 병들어 고통받는 환자를 만나거든 부처님 공양하듯 정성껏 간호하세요. 하고 많은 공덕중에 8공덕이 으뜸이고 그 중에 간호 공덕 최상의 복이라네. (법명경)
○... 현재(現在)라는 나라가 있었다. 한 장로 비구가 위중한 병을 앓고 현재국의 한 절에 누워 있었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손수 그의 몸을 씻어주며 말씀하셨다.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이와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공양하면 그 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될 것이다." (법구비유경)
○...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 역시 병들었으며, 모든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마혹의 세계)에 들기 때문이다. 마혹의 세계가 있다면 병도 있게 마련이다. 만약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일어난다. (유미경)

○...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가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수타니파타)
○... 우주는 한집 중생은 한 가족, 그래서 우리 중생 아득한 옛적부터 부모 형제 아님이 없네. (대승본생시지관경)
○... 이보오 길손이여, 대비심 일으키어 가여운 중생들을 힘따라 구제해세. 끝없는 육도윤회 영원히 벗어날려면 이러한 구호중생 최상의 길이라네. (대방광불화엄경)
○... 불심(佛心)이란 큰 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관무량수경) (관련기사 2·19면)

신행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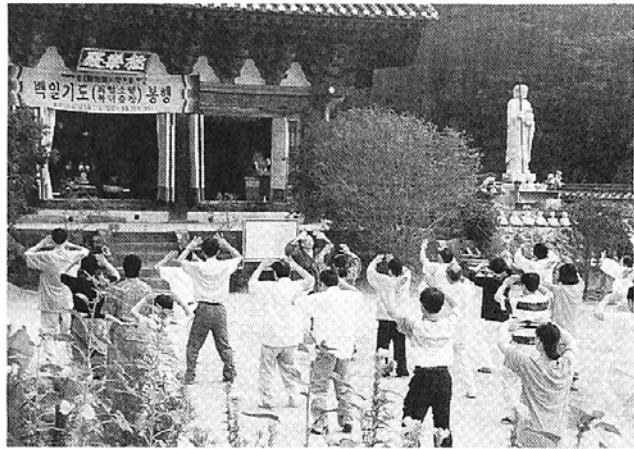
죽음대비한 수행법 지도

죽음 이후의 삶을 배우고 준비하기 위한 수련을 해보자.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는 수행과 포교의 갈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수련 프로그램과 '죽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정토수련회를 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계속되는 수련회에서는 정토수행법, 열불명상법, 지비관, 수식관, 관정기도, 선체조, 육근합화, 맨발산행, 향공(香功) 등 다양한 수행법이 현장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대원사는 또한 10일 이상~30일 미만의 시한부 출가자도 모집하고 있다. 천봉산 대원사는 광주에서 50분, 송광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다. (0694)52-1755.

파도소리 관하며 관음기도

고려시대 보조국사의 정혜상수 결사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고흥 송광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이 시린 우리 이웃의 노인들. 사랑으로 마련하는 웃어른 공경의 자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따뜻하게 느끼게 한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95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인 경로잔치를 준비한다. 서초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경로잔치는 따뜻한 이웃과 한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27일 오전 11시 구룡사 1층회관에서 열린다. (02)575-7766



암(주지 일선스님) 불 수련회.

진리의 섬 거문도에서 파도소리를 관(觀)하며 세속에 찌든 번뇌를 떨쳐 반야의 지혜를 얻고자 마련된 이번 수련회는 좌선의를 비롯 선체조, 응두봉 산행, 관음기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간은 매주 금~일요일(24~31일)이며, 회비는 없다. (0666)842-8488.

'손짓사랑회' 수화교실

손글씨로 표현되는 언어의 세계를 통해 말 못하는 아픔을 공유한다면 우리 사회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공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해성스님)은 통곡대 수화동아리 '손짓사랑회' 주최로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27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수화교실은 언어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언어의 장(場)이 될 것이다. 수강료 1만원. (02)202-5831.

소년가장동기 '작은음악회'

꽃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봄날. 한편의 고운 선율을 소년소녀가장들을 따뜻한 불음(佛音)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안산불교연합회(단장 이영진)에서는 제1회 소년소녀가장동기 작은음악회를 19일 오후 3시~7시에 성포동 선유치원 4층에서 안산불교연합회, 안산신문사, 선유치원 후원

보성 천봉산 대원사 정토수련회에서는 매 주말마다 주지 현장스님의 지도로 선체조를 익히고 있다.

으로 개최한다. 또한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찬불가 테이프 1개씩을 증정한다. (0345)84-3095

관악산 자연보호 활동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일 뿐.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회주 법정스님)는 20일 관악산에서 매품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인다. 이번 행사에는 맑고향기롭게 회원 8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대 입구 주차장에서 오전 9시 출발. (02)741-4696.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상상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한 글짓기 행사가 있다. 대문사(주지 천운스님)는 18일 대문사 유물관 앞에서 해남군 소재 초·중·고, 일반인 대상으로 서산대사 탄신 477주년 제3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친구와 싸운 일'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글감을 대상에 따라 세분화시켜 줄 예정이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애환정신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634)34-5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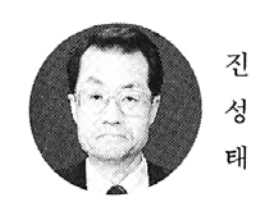
우주는 한집 중생은 한가족

어린시절 철들기전 가끔 어머니따라 부산 금정산(金井山) 옥천암(玉泉庵)에 따라가서 먹은 절밥이 너무 맛있고 절에만 가면 똘똘 마음이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대학에과때 무척이나 궁핍한 생활을 하며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찾아가 부산 대각사의 일요법회에서 처음 만난 (반야심경)은 나에게 무한한 위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었고 묘한 법들도 느끼게 하였다. 뒤이어 불교청년회에서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공부하면서 초발심을 내게 된 것이 나에게 본격적인 불교입문이었다고나 할까? 그뒤 불교관계 서적을 다치는 대로 독파하였고 조석으로 (천수경) (금강경)을 독송한 것이 나의 전공인 의학공부에 일심으로 매진할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다. 의대 6년간 그야말로 일과를 넘어서 심심할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졸업후 인턴 수련과 전공중 서울 도선사의 주요 정진회에서 일년간 주말마다 한 철야정진은 불교에 대한 나의 심심을 굳건히 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 뒤 전공과목의 선택에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정신의학에 택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청담스님 인과법문 신심 밀거름 의사불자회 동참... 보현심대행 발원

당시 만난 청담스님의 인과법문과 마음에 관한 진솔한 대화, 그리고 조계사에서 살하신 김강경강의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다. 도마유학중에는 비록 책으로 만났지만 에릭 프롬, D.J.스즈키, 크리스마스 험프리 등의 영문서적은 서구의 현대심리학과 내지 정신의학자들보다 더 친근감과 매력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이들의 저서가 다른 동양사상에 관한 서적과 더불어 서구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듣음을 느꼈다. 특히 유태학자간통 통사이 방만한 대도시의 선선터에서 만난 서구인들의 선과 불교에 대

나의 수행일기



진성태

다한 이해와 수준은 생각보다 높았고 특히 정신의학자들의 관심은 대단하여서 향후의 발전과 전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귀국후 이미 타계하신 김중해(金鍾海)선생과 에릭프릭슨(Erik Frickson)의 인간발달이론(자아발달이론)과 불교의 대승사상과의 접목을 같이 연구했고 선차요법(禪茶療法), 영상요법(影像療法)-불상의 나열(만다라 조성)을 통한 환자의 자각유도 그리고 갈등, 번뇌의 극복-선의 정신의학적인 접근 등을 시도하였다. 1970년대 당시 우리 정신의학계는 아직도 서구 심리학에 바탕을 둔 정신의학만을 고집하는 경향이었으나 서서히 동양정신 특히 대승불교와 노장사상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한차원 높은 이론을 제공하고 상 호보완 내지 궁극적인 목표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불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직장법우회 창립, 각종신행단체의 가입, 불교대학 수학, 의사불자회 창립 및 운영, 불교인도회 참여 등 양적인 발전이 있었으나 향후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면서 전문분야에서의 본격적인 불교사상의 도입과 실천을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사업, 불교문화회관, 불교병원 등의 설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다. 타종교단체는 이미 사회복지차원에서 훨씬 앞서서 나아가고 있지만 불교계는 차제에 각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참여가 요망된다. 회암사상의 내용이 자비, 무애 및 광등의 정신이라고 볼때 이러한 삼대정신으로 보현보살의 심대행, 즉 예경제불, 청전어래, 관공공양, 화회업장, 수회공덕, 청정법문, 재물경계, 상수불학, 참승중생 및 보배회향의 심대행을 세취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보현을 포함한 모든 불자의 최종목표가 되었으면 한다. (진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생활 속의 참사람결사 학술세미나

"필경에 어떠한 것이 차별 없는 참사람인가?"

과학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불안과 갈등, 소외에 시달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보와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회의와 공포는 왜 계속되는가? 환경오염을 비롯한 현대사회의 온갖 병통 그 근본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인가? 무명과 법집(法執)으로부터 해방된 본래의 차별없는 참사람! 선·교 양쪽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참사람을 찾는 수행의 방향을 모색한다.

참사람 결사는 참사람을 자각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수행하는 결사입니다. 삶의 방향과 수행방법을 모색하는 참사람 학술 세미나에 뜻있는 불자 여러분과 각계의 동참을 바랍니다.
○ 법문: 서용 큰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주제 발표: 선에서 본 참사람 - 성본 스님(동구대 불교대 교수)
○ 주재성교수(바야리 성전협회 한국대표)
○ 김지경 박사(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토론: 최성열 교수(조선대 철학과), 고광표 법사(대구 여래포교원장), 김용관 선생(KBS PD, 입체사상 연구), 일수 스님(유운선원)
● 일 시 : 4월 19일(토) 오후 2시~6시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문의처 : 백양사 ☎ (0685) 92-750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綿히 이어온 어산(법배) 작법과 불전 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실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어산과 : 00명 승의과 : 00명
● 교육내용 어산과 :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음, 시식, 상주권공 등 작법(바라부, 착복무동) 승의과 :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일반 일용의식 - 도량식, 종승,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음, 시다림, 절안, 방생 등
● 수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응시자격 ○ 종현, 중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4) 반명함판 사진 5매
● 문의처 : 02)921-3425
● 접수일자 : 1997. 4. 9 ~ 4.30(우편접수도 가함)
● 면접일자 : 1997. 5. 9 (금) 오후2시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개강일자 : 1997. 5월 중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중앙승가대학교 내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학처 (921-3425)
'97학년도 1학기 시간표
요일/과정 승의(習儀)과정 어산(魚山)과정
월요일 14:00~15:30(연구원강의실) 19:00~20:30(연구원강의실)
수요일 14:00~15:30(연구원강의실) 19:00~20:30(연구원강의실)/작법
금요일 16:00~18:00(정전관 301호)/전체 이론 특강